

KIA 박정우 “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수 되겠다”

‘퓨처스 도루왕’ 외야수...인생 최고와 최악 경험한 시즌
“내 점수는 주루 0점·수비 50점·타격 70점...분발하겠다”

“제 유니폼 입은 분들 부끄럽지 않게 뛰겠습니다.” 선배들이 키운 KIA 타이거즈 외야수 박정우가 팬들을 위해 된다. 박정우는 올 시즌 야구 인생의 최악의 순간과 최고의 순간을 동시에 경험했다. 지난해 퓨처스리그 도루왕에 빛나는 다리, 팀에서도 꼽는 강한 어깨를 가진 만큼 팀은 박정우의 주루와 수비 능력을 기대했다. 하지만 박정우가 스스로 평가할 올 시즌 점수는 ‘주루 0점, 수비 50점, 방망이 70점’이다. 박정우는 올 시즌 시작 원정에서 팀의 패배를 확정하는 ‘끝내기 주루사’로 고개를 숙였다. 정규시즌에 도루는 단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다. 박정우는 “주루는 0점이다. 실수를 많이 했다”며 “사직에서 아웃되고 (있으려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끌어올렸다. 기억이 안 나는데 서건창 선배님한테 ‘2군 가겠다. 큰일 났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선배님이 괜찮다고 위로를 해주셨다”고 아꼈던 순간을 떠올렸다. 잊고 싶은 주루 기억 그래도 마무리는 좋았다. 박정우는 2024시즌 팀의 마지막 득점이자, 우승에 마칩표를 찍는 귀한 득점을 올렸다. 그는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6-5로 앞선 8회말 1사 1루에서 이창진의 대주자로 들어간 뒤, 박찬호의 좌중간 2루타로 홈을 밟았다. KIA는 7-5로 격차를 벌이고, 통합 우승을 확정했다. 박정우는 “마지막 득점이라는 게 좋았다. 올 시즌 야구 끝에 마지막 득점을 했다는 게 뜻깊었던 것 같다”고 득점 순간을 돌아봤다. 박정우는 올 시즌 호수비를 몇 차례 선보였다. 마운드 위기 상황에서는 투수로 등장해 강한 어깨를 보여주기도 했다. ‘강권’의 면모는 보여줬지만 정밀함이 부족했던 만큼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박정우는 “외야는 원래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수

비율이 거의 10할이 돼야 하는데 에러를 3개나 했다. 송구에서 2개도 있었는데 그래서 50점이다”며 “주자를 무조건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급해서 그런 것도 있다. 송구 정확도를 더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타격에 대해서는 “그래도 70점을 주고 싶다. 타점 상황 때 점수를 많이 냈다. 캠프에서도 방망이가 많이 좋아졌다. 입단 이후 가장 힘들었던 마무리 캠프였다. 이렇게 했는데 내년엔 안타 못 치면 안 될 것 같다”고 웃었다. 잊지 못할 시즌을 보낸 그에게는 든든한 선배들이 있었다. 실패의 순간 누구보다 따뜻하게 안아준 서건창이 있었고, 옆에서 ‘당근과 채찍’으로 이끄는 박찬호도 있다. 김선빈도 후배의 훈련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박정우는 “나는 딱히 한 게 없다. 찬호 형이 옆에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 ‘정신 차려’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다. 형이 쓴소리 많이 하는데 결심했을 때는 칭찬 많이 해줬다. 형이 심부름도 많이 시키는 데 웃도 사주고, 밥도 많이 사준다(웃음)”며 “내년에는 두 배 더 같이하고 싶다. 경기도 더 나가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찬호 형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박정우는 1월에는 오키나와로 가 자체 캠프를 치른다. 김선빈이 후배들의 훈련 비용을 부담하고, 박찬호도 차량 등을 지원한다. 박정우는 “1월에 선빈 선배, 찬호형, (한)준수가 함께 오키나와에서 준비를 한다. 지난해에는 제주도에서 했는데, 선빈 선배님이 또 지원해 주신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정우는 올 시즌 꿈에 그리던 한국시리즈 무대를 밟았다. 여전히 당시 영상을 보면서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다. 박정우는 “우승했을 때 너무 좋아서 오히려 기억



빠른 발과 강한 어깨를 앞세운 KIA 타이거즈 박정우가 올 시즌 경험을 바탕으로 2025시즌 외야에서 입지를 넓혀겠다는 각오다. (KIA 타이거즈 제공)

이 안 난다. 동영상이 아직도 본다”면서도 “그렇게 긴장은 안 했다. 들떠서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정규시즌처럼 똑같이 하려고 했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또 실수가 나오니까 정규시즌처럼 똑같이만 하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2017년 우승할 때는 집이 야구장 옆이었다. 소리가 장난 아니었다. 이번에는 관중석이 아니라

벤치에서 그 소리를 듣으니까 소름이 돋았다. 두 번 다시 또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다”며 “5차전 초반에 너무 파이팅을 외쳐서 힘이 없었다. 머리가 아플 정도였는데 다들 그럴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고 한국시리즈를 회상했다. 올 시즌 많은 응원을 받은 박정우는 최선을 다해 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수가 되겠다는 각오다.

박정우는 “솔직히 내 자리가 없다. 백업이 누가 될지 모른다. 내년에 더 잘하도록 하겠다”며 “올해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내 실력이 많이 모자랐는데 야구장도 많이 찾아주시고 선물도 많이 챙겨주셨다. 내 유니폼 입은 팬들이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 이적설 또 꿈틀...이번엔 튀르키예?

영국 매체 “갈라타사라이, 오시멘 대체 공격수 찾는 중”



“손흥민은 지난주 토트넘과 재계약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이미 손흥민은 지난해 여름부터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이상 스페인), 맨유, 페네르바체(튀르키예)까지 차기 행선지로 떠올랐고 이번엔 갈라타사라이가 추가됐다. 이 모든 것이 토트넘과 계약 연장 소식이 들리지 않아서 이어진 결과물이다. 2015년 8월 레버쿠젠(독일)을 떠나 2200만파운드(약 393억원)의 이적료로 토트넘과 5년 계약을 했던 손흥민은 2018년 7월 재계약을 통해 2023년까지 계약 기간을 늘렸고, 2021년 7월 두 번째 재계약을 하면서 2025년까지 여름까지 될 예정이다. 2024-2025시즌을 마지막으로 손흥민과의 계약이 끝나게 되면서 팬들은 재계약 여부에 관심을 쏟는 가운데 토트넘과 손흥민은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추측성 보도만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도 유럽 이적시장에 정통한 걸로 알려진 언론인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토트넘이 손흥민과 계약을 2026년 6월까지 연장하는 계약 조항을 발동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서 손흥민의 거취를 둘러싼 보도들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소속팀 토트넘(잉글랜드)과 계약 연장 확정 소식이 지체되자 ‘캡틴’ 손흥민(32)을 둘러싼 이적설이 또다시 꿈틀대고 있다. 이번에는 튀르키예 ‘전통 명가’ 갈라타사라이다. 영국 매체 팀포크는 9일(현지시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가 갈라타사라이(튀르키예)의 스트라이커 빅터 오시멘(25)을 내년 1월 겨울 이적시장에서 영입하기를 원한다”며 “이에 따라 갈라타사라이는 오시멘의 대체 공격수로 손흥민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매체 스포츠비블 역시 오시멘이 내년 1월 갈라타사라이를 떠날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 매체는 “나폴리(이탈리아)를 떠나 갈라타사라이에서 임대로 뛰고 있는 오시멘은 이번 시즌 공식전에서 10골을 넣었다”며 “팬수가 7000만 유로(1055억원)의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해 오시멘을 영입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전했다. 갈라타사라이의 ‘손흥민 영입 희망설’을 처음 보도한 것은 튀르키예 매체 파나티크다. 파나티크는 지난 5일 “갈라타사라이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과 바이에른 뮌헨(독일)의 수비수 사샤 보이(23·프랑스)를 영입하고 싶어 한다”며

스윙 한 번에 6600만원 번다니...

MLB 소토, 뉴욕 메츠와 15년 1조955억원 계약

도미니카공화국 출신 야구 선수 후안 소토(26·사진)가 세계 프로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1조원대 계약’을 앞두고 많은 화제를 뿌리고 있다. MLB닷컴 등 미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자유계약선수(FA) 소토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 리그(MLB) 뉴욕 메츠와 15년 7억6500만달러(약 1조955억원) 규모 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액 보장 금액이고, 인센티브를 합치면 소토가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8억달러(1조1456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소토는 보장 금액으로만 연평균 5100만달러(730억원)를 향후 15년 동안 받게 된다. 그는 지난해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맺은 역대 최대 계약 규모(10년 7억 달러)를 뛰어넘었다. 일반인이려면 체감하기 어려운 수치다. AP통신은 10일(한국시간) 소토가 얼마나 많은 돈을 받는지 2024시즌 개인 기록과 결부해 설명했다. AP통신은 “소토는 2024년 MLB 뉴욕 양키스에서 타율 0.288, 109타점, 41홈런을 쳤다”며 “이 기록을 계속 유지한다면 향후 15년 동안 홈런 1개당 약 120만달러(17억원), 1타점당 46만7890달러(7억7000만원), 안타 1개당 30만7229달러(4억4000만원)를 받는 셈”이라고 전했다. 소토는 경기장에서 ‘숨만 쉬어도’ 엄청난 수입을 올린다. 연평균 수입을 출전 경기 수로 나누면 한 경기당 31만4815달러(4억5000만원)를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아울러 한 번 방망이를 휘둘러 때마다 4만6322달러(6600만원)가 통장으로 들어온다. AP통신은 “이는 소토가 2024시즌처럼 향후 15년 동안 맹활약을 펼친다고 가정했을 때 받는 돈”이라며 “부상, 부진으로 출전 경기가 줄어들면 경기당 수입, 스윙 당 수입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토의 몸값은 말 그대로 천문학적이다. 그는 15년 동안 2024시즌 성적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한 타석당 약 1억원씩 받는다.



KBO리그 2024시즌 평균 연봉은 1억5495만원으로, 소토는 타석에 들어갈 때마다 국내 프로 야구 선수들의 연봉에 가까운 수입을 수령하는 셈이다. 소토가 연봉을 2년 정도 모으면 KBO리그 구단을 인수할 수도 있다. 신세계그룹은 2021년 SK 와이번스를 인수할 때 1352억원을 지불했다. 소토가 수입을 현금으로 받는 건 불가능하다. 5만원권 100장의 두께는 약 1.1cm로 1조955억원을 오만원권으로 쌓으면 약 2400m가 된다. 국내 최고층 빌딩 잠실 롯데타워(555m)의 4배가 넘고 한라산(1947m)보다 높다. 소토를 영입할 돈이면 KBO리그 5개 구단에 돛구장을 선물할 수도 있다. 국내 유일의 돛구장 고척스카이돛의 건설비용은 1950억원이었다. /연합뉴스

KPGA 석권 장유빈, 한국 국적 첫 LIV 골프 이적



올해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서 상금왕과 대상, 최저타수상을 휩쓴 장유빈(사진)이 내년에는 LIV 골프로 옮긴다. LIV 골프 사정에 밝은 골프계 인사들에 따르면 장유빈이 내년엔 LIV 골프 아이언헤드 GC에 합류한다고 10일 전했다. 장유빈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올댓스포츠 구동희 대표는 “11일 오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장유빈이 LIV 골프로 옮기면 한국 국적으로는 최초의 선수가 된다. LIV 골프 아이언헤드 GC는 미국 교포 케빈 나가 이끄는 팀이다. 최근 뉴질랜드 교포 대니 리와 고즈마 주니치로

(일본)를 내년 팀원으로 확정된 아이언헤드 GC는 마지막 한명을 장유빈으로 채웠다. 케빈 나스 KPGA 투어 시즌을 마치고 장유빈과 접촉한 끝에 이적 결심을 끌어냈고 지난 5일부터 나흘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아시아투어 시즌 최종전 PIF 사우디 인터내셔널에 장유빈과 동반 출전해 이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PIF 사우디 인터내셔널에서 케빈 나스 장유빈, 대니 리와 함께 1, 2라운드 경기를 치렀다. 케빈 나스는 이 대회 때 장유빈에게 LIV 골프 선수를 소개하고 LIV 골프의 분위기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